제 7 강 욕망과 억압 1

◆ 정신분석의 오류와 한계

※ 학습목표
정신분석의 오류와 한계를 안다

▲ 정신분석의 오류추리 1
들뢰즈-가따리가 말한 욕망생산의 세 가지 종합은 욕망에 대한 통상적인 관점을 바꾸게 합니다. 먼저, 욕망이 부분대상들의 접속적 종합에 의해 생산된다는 것은 욕망을 처음부터 '인물'(person)의, 인물에 대한, 인물을 위한 욕망으로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분대상들의 리비도적 연결을 인물들 사이의 애증의 관계로 바꿔 이해하는 것은 자유롭게 '분리될 수 있는'(détachable) 부분대상으로부터 '분리된'(détaché) 완전대상으로서의 인물(personage)을 미루어 짐작하는 외삽법(extrapolation)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젖가슴-기계는 입-기계가 젖의 흐름을 절단하면서 채취된 것이지 '엄마'라는 인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 정신분석의 오류추리 2
두 번째, 욕망이 <기관 없는 신체>의 등록적 종합에 의해 재생산된다는 것은 욕망을 처음부터 '유기체'의 생명활동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합니다. 인간 유기체의 개인적 발달 초기에 부모의 오랜 양육이 중요한 환경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욕망의 원형을 부모와의 근친상간적 관계에서 도출하는 것은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반복한다'는 목적론적 오류추리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이런 오류추리는 개인의 성장에서 유적(類的) 인간의 발달 경로를 도출함으로써 '도달점'을 '출발점'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개별 인간의 탄생과 유아기는 오랜 진화와 사회적 발달의 도달점이지 유적 발달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도달점으로서의 유아기 가족을 욕망생산의 출발점으로 전치시킴으로써 마치 인간은 매번 '사회' 이전단계로부터 사회적 단계로 진화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 정신분석의 오류추리 3
세 번째, 욕망이 <기관 없는 신체>의 강도적 생산에 의해 향유의 주체를 잔여로 남긴다는 것은 욕망을 처음부터 '누군가'의 욕망으로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아의 욕망, 무의식적 주체의 욕망, 아버지의 욕망, 어머니의 욕망, 타자의 욕망, 지배자의 욕망 등 욕망을 '누군가의' 욕망으로 보는 것은 생산의 원인과 생산의 잔여물 사이의 대응관계를 거꾸로 일치시키는 오류추리입니다. 욕망생산의 원인은 집합적으로 구성되는 <기관 없는 신체>이며, 주체는 그 <기관 없는 신체>의 표면에 형성된 강도적 지대에 집단적 이름들의 효과가 결부되면서 생기는 것인데, 정신분석은 마치 숨어 있는 인격적 주체가 욕망을 생산하는 작인(agent)인 것처럼 간주합니다. 주체란 욕망이 생산되는 결과로서 출현하지 어떤 인격적 실체로서 처음부터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분석이 무의식을 발견해 놓고도 무의식에 인물의 얼굴, 가족의 얼굴을 부여하여 결국에는 무의식적 욕망에 '욕망의 주체'를 일 대 일로 대응시킨 것은 욕망생산의 비전체적 집합성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 욕망과 결여
이와 같은 정신분석의 오류추리가 남긴 가장 끔찍한 결과는 욕망을 항상 '결여'와 연관시키고 욕망을 언제나 '억압'과 결부시키도록 만든 것입니다. 욕망은 언제나 결여로부터 발생하고 근원적으로 억압되어야 한다는 니힐리즘이 정신분석의 철학입니다. 정신분석이 이런 니힐리즘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은 신경증자의 욕망에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경증이란 욕망을 억압해서 생긴 금욕주의의 질병입니다. 신경증자는 욕망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망을 억압합니다. 왜 욕망을 죄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욕망이 도덕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 사회의 도덕은 '완전한 충족'을 금지하는데 자신은 완전한 충족을 원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증자의 죄의식은 '완전한 충족'에 대한 형이상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욕망생산 원래 모습인 부분충동으로부터 그것이 분리되어 나온 '완전한 충족'을 소급해서 추리해 내고 그 가상의 '완전체'에 비춰 봤을 때 자신은 뭔가를 결여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그 결여를 메워줄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그런 형이상학적(기독교적) 탐구에 가족적 표상을 부여하여 자신은 어머니나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을 꿈꾸었는데 그것은 도덕적 징벌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느껴서 스스로 그

욕망을 억압하여 신경증에 걸립니다. '결여'와 '억압'은 기독교의 편집증적 집단 무의식(최초의 낙원, 추방, 결여, 구원의 서사)을 구성하는 핵심이며 신경증은 그것에 가족적 표상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정신분석은 이 신경증자의 금욕주의적 욕망을 인간 보편의 욕망으로 승인했습니다.

▲ 쾌락원칙과 현실원칙

정신분석은 기독교의 이데올로기에 과학적 합리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른바 '생물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유기체가 외부 환경에 적응하면서 개체성을 보존하는 원리를 욕망생산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쾌락의 실현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요구되는 제약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원칙'을 도출합니다. 프로이트는 현실원칙을 리비도 경제학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쾌락원칙에 따르면 리비도는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흐릅니다. 이 자유로운 리비도의 흐름은 현실원칙에 따라 구속됩니다. 현실원칙은 자유로운 흐름을 '묶어서' 특정한 표상에 결부시키고 그 표상의 현실성을 검사하게 합니다. 만약 그 표상이 현실적으로 불쾌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으면(가령, '어머니'를 향한 리비도라면) "그 표상이 의식에 의해 감지되기 전에 표상을 원상태 그대로 억제"[1]시킵니다. 프로이트는 어떤 표상이 의식에 의해 감지되기 전에 원상태 그대로 억제시키는 것을 원억압(Urverdrängung, refoulement originaire)이라고 부릅니다.

▲ 원억압의 표상작용 - 거짓표상의 부여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원억압에 의해 리비도의 자유로운 흐름이 '묶여서' 특정한 표상에 결부되고 그 표상이 억압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억압은 우선 리비도의 흐름을 특정한 표상에 결부시키는 '표상작용'입니다. 프로이트가 제시한 원억압의 표상은 근친상간적 표상인데, 리비도의 자유로운 흐름을 묶어서 근친상간적 표상에 결부시키는 것이 바로 원억압의 표상작용입니다. 그런 표상작용에 의해 욕망은 근친상간을 향한 욕망이 되고 현실원칙에 의해 마땅히 억압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됩니다. 들뢰즈-가따리는 이와 같은 원억압의 표상작용(représentation)을 욕망의 표상표현(représentant)에 속임수의 심상을 주어 치환된 표상내용(représenté)으로 옮겨놓는 작업이라고 말합니다.(177) 아버지 어머니는 알지도 못하는 욕망에게 '너는 아버지를 향한 욕망이고, 너는 어머니를 향한 욕망이야'라고 거짓 표상을 부여하여 '그러니까 너는 억압되어야 해'라고 말하는 것이 원억압의 표상작용입니다. 억압으로부터 억압된 욕망을, 금지로부터 금지된 욕망을 도출하는 것은 억압(법)의 유도심문에 고분고분 넘어가는 것입니다.(욕망은 금기로부터 온다? 훔친 사과가 맛있다!)

---

1)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역, 『무의식에 관하여』, 열린책들, 1997, 「정신적 기능의 두 가지 원칙」, 18 쪽.

◆ 승화이론에 대한 두 입장

※ 학습목표

승화이론에 있어서 프로이트와 들뢰즈-가따리의 대립지점을 이해한다

▲ 억압의 정당화

프로이트가 억압에 대해서 처음부터 당연하다고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명적 성도덕과 현대인의 신경병』(1908)이라는 논문에서 프로이트는 문명에 의한 성도덕이 인간의 성충동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때 억압되는 충동은 부분충동들의 발현(도착증)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1910 년을 기점으로, 충동의 기본적 패턴은 부분충동이 아니라 오이디푸스적 욕망이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이트는 문명의 억압을 필연적으로 보는 관점을 취하면서 억압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 현실원칙과 노동가치론

쾌락원칙이 현실원칙에 굴복해야 할 필연성은 자연의 결핍과 노동의 필요에 있습니다. 「환상의 미래」(1927)에서 프로이트는 '문명의 입장'에서 '문명의 능력'을 두 가지로 설정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의

힘을 지배하고 자연의 부를 빼내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분배의 규칙을 정하는 능력입니다.[2] 이 둘은 자연의 '결핍'을 매개로 연결됩니다. 자연으로부터 빼낸 부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된 부를 분배하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자연의 부를 빼내는 '노동'의 능력으로 규정되는 것은 자연의 '결핍성'(희소성) 때문입니다. 19 세기 고전경제학자들이 '부'의 원천을 '자연'이 아니라 '노동'에서 찾은 것은 자연이 지닌 근본적인 '희소성' 때문입니다. "노동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은 인간이 너무 많아져서 토지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결실의 양만으로는 더 이상 충당되지 않을 때였다...경제를 가능케 하고 필요하게 하는 것은 희소성의 항구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다"(『말과 사물』, 303) 19 세기 노동가치론은 이처럼 자연의 '결핍' 속에서 출현했습니다.

▲ 결핍의 자연성

노동이 문명과 가치의 원천으로 설정되자 결핍은 '자연적'인 것으로 규정됩니다. 아무리 노동생산력이 발달해도 자연적 '결핍'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생산물을 분배하기 위한 규칙의 제정, 특정한 인간의 노동이 타인에게 착취되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집단적 노동에 따른 개인적 욕구의 포기가 정당화됩니다.(『문명속의 불만』, 「환상의 미래」, 175) 쾌락원칙이 통과해야할 현실원칙이란 노동가치론의 원칙입니다.

영어(need)나 불어(besoin)에서 욕구와 결핍은 같은 단어로 표현됩니다. 부족하니까 충족을 위한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노동가치론은 욕구와 결핍을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자연의 결핍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인간의 노동이며 노동을 통해 인간의 자연적(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생산물이 나온다는 논리입니다. 프로이트는 이 자연적 욕구를 '본능'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욕망, 즉 리비도적 충동은 이 생물학적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간사회의 특수한 현실 속에서 심리적으로 굴절되어 나타난 결과로 설명합니다.

라캉 역시 욕망을 생물학적 '욕구'에서 이차적으로 파생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라캉에게 자연에서 문명으로 넘어가는 문턱은 '언어'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언어적 요구(칭얼거림)로 표현해야 하는데 엄마는 그 요구를 잘 못 알아듣고 아이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요구와 언어적 요구 사이에는 실재와 상징 사이의 간격이 있으며, 그 공백이 욕망을 추동시키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들뢰즈-가따리는 "욕망이 욕구들에 의해 떠받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반대로 욕구들이 욕망에서 파생되는 것이다"(49)라고 말합니다.

▲ 자본주의적 욕망

욕구를 결핍(빈곤)과 일치시키고 욕구에다가 '자연성'을 부여한 것은 자본주의적 욕망입니다. 자본주의는 그 시초부터 결핍(빈곤)을 양산함으로써 탄생했습니다. 원주민들의 자급수단이 빵나무를 베어 내고 농민의 공유지에 울타리를 침으로써 그들을 빈곤의 구렁텅이에 빠뜨렸고 그렇게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들을 '자유롭게' 노동력을 판매하는 프롤레타리아로 '구원'해 주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재생산은 빈곤(결핍)의 재생산입니다. 빈곤을 느끼지 않는 매뉴팩쳐의 숙련 노동자, 근면의 습속이 몸에 배지 않은 초기의 노동자들은 생산성이 증가하면 더 적은 시간을 일하고 나머지는 놀고 먹으려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산업예비군(혹은 비정규직)의 노동 선망은 노동자의 실업(노동박탈) 공포와 배타택일적으로 이접됩니다. 남근 선망과 거세(남근상실) 공포로 이뤄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장에서 출현했지 가족의 요람에서 출현한 게 아닙니다.

▲ 노동가치론의 유토피아적 전망

쾌락원칙이 현실원칙에 굴복해야 할 두 번째 필연성은 성욕의 비사회성에 있습니다. 사회는 노동을 통해 자연의 희소성을 극복하면서 발달하는데 노동의 수행을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 에너지가 리비도적 충동으로 소진되는 것을 막고 "성적인 활동에서 노동으로 향하도록 주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3]는 생각은 자본주의자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 역시 공유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노동가치론의 유토피아적 전망은 생산력의 증가나 자동화, 혹은 생산력의 발달을 억제하는 생산관계의 혁신을 통해 노동 시간은 최소화하고 욕망(여가)의 시간은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유토피아일 뿐입니다. 현대의 자본주의는 여가의 시간조차 노동의 시간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 억압과 승화
욕망과 사회적 생산 사이의 적대성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승화'(sublimation)입니다. 욕망생산의 에너지인 리비도를 사회적 생산에 적합한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승화입니다. 육체적 성욕을 에로스로, 동성애적 리비도를 우정으로, 성적 매력을 예술적 아름다움으로, 성적 호기심을 지적 탐구로, 어머니에 대한 근친상간적 욕망을 대지와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아버지에 대한 애증의 콤플렉스를 지배자에 대한 복종과 저항의 콤플렉스로 탈성화(desexualization) 시켜 문명사회를 위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승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비도가 그 자체로 발현되는 것을 억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이트는 사회적 관심을 성적 관심으로 환원했다고 비판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프로이트 자신은 리비도의 사회적 생산력을 포기했습니다. 리비도가 사회적 생산력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승화가 일어나서 리비도의 성적 특질이 중화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리비도 일원론자나 성-환원론자가 아닙니다. 정확히 프로이트는 가족주의자입니다. 성욕은 엄마-아빠-자식으로 이뤄진 핵가족 안에서 형성되고 승화된 형태로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의 성질은 변하지만 관계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사회적 생산의 에너지 - 리비도
들뢰즈-가따리는 이런 승화 이론을 거부합니다. 리비도는 그 자체로 사회적 생산의 동력입니다. 욕망생산과 사회적 생산 사이에는 본성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회적(경제적) 생산은 그 자체로 욕망생산의 특정한 체제입니다. 원시경제는 대지라는 충만한 신체 위에 인물과 동물과 식물과 선물과 주물이 등록되어 결연에 의한 교류와 친족에 의한 스톡이 일어나는 욕망생산의 특정한 방식이며, 전제군주사회는 군주의 충만한 신체를 모터로, 관료체제를 전동장치로, 저변의 마을 공동체를 노동부품으로 삼는 거대한 국가기계를 작동시켜 욕망의 흐름을 초월적 일자에게로 빨아들이는 욕망기계이며, 자본주의 경제는 물자와 인물의 흐름을 화폐의 흐름으로 흡수하여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며 지역적 코드를 벗어나도록 조직하는 욕망생산의 한 양태입니다.
욕망생산의 에너지 그 자체가 리비도인 것입니다. 이 말은 리비도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리비도는 사적이고 가족적인 것 혹은 유기체의 특정한 부위에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 에너지 그 자체가 리비도라는 것입니다.

---

2)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희 역,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173 쪽.
3) 마르쿠제, 김인환 역, 『에로스와 문명』, 나남, 1996, 33 쪽.

◆ 정신분석학에서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 학습목표
정신분석학에서 바라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한계를 극복한다

▲ 욕망생산의 혁명성
욕망생산이 사회적 생산과 본성상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욕망에 대한 사회적 억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회는 분명 욕망을 억압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특정한 영토로부터 벗어나는 흐름과 특정한 규칙(코드)으로부터 이탈하는 연쇄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탈영토적 흐름을 국지화(영토화)하고 욕망의 탈코드적 연쇄를 고정(코드화)시키지 않는 사회는 없습니다. 탈영토화하고 탈코드화하는 욕망생산이 분열증적 욕망, 혹은 분자적 욕망입니다. 사회는 욕망생산이 이런 분열증적 극한으로 치닫지 않도록 억압하기 위해 코드와 영토를 생산합니다.
먹고 입고 자는 데 필요한 욕구의 대상을 생산하는 것은 욕망생산이지 사회적 생산이 아닙니다. 사회적 생산은 분열증적 욕망을 억압하는 코드와 영토의 생산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욕망을 억압하는 것은 욕망이 사회적 코드와 영토를 벗어난 흐름을 생산하기 때문이지, 욕망이 어머니를 욕구하고 아버지의 죽음을 욕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욕망은 그것이 어머니와 동침하려는 욕망이기 때문에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혁명적이기 때문에 사회를 위협한다."(179) 욕망은 사회적 코드와 영토를 폭파시키기는

힘의 의지이기 때문에 욕망생산은 그 자체로 혁명적입니다. “욕망은 혁명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자체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혁명적이다”(180)

▲ 성욕과 가족 이야기

한편 성욕은 가족의 장에서 형성되었다가 승화되어 사회적 관계에 투여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회적 장에 투여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욕이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형성된다고 합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성적 충동은 젖을 먹거나 똥을 싸는 생물학적 욕구로부터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리비도가 투여되는 최초의 대상은 당연히 부모라고 합니다. 그에게 부모는 리비도가 파생되는 생물학적 ‘환경’이지 사회적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는 부모를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그로부터 리비도적 충동이 투여되는 성적 대상으로 간주하지 사회적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 사회적 관계에서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그러나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발견하는 곳마다 사회적 관계가 발견됩니다. 프로이트가 분석한 신경증자들의 유년 시절에는 한결같이 하녀가 등장합니다. 그들을 성적으로 유혹한 인물은 대체로 하녀인데 프로이트는 하녀를 어머니나 아버지의 대리자로 해석합니다.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발견한 것은 자기 분석을 통해서인데, 그것 역시 부유한 이복형과 도둑질하는 하녀를 배경으로 해서입니다. 신경증자들의 가족 로망스에서도 가난한 집에서 길러진 아이는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부르주아 가족의 자식이었습니다. 신화 속의 오이디푸스 역시 라이오스에게 버림받은 후 하층민 부모의 손에서 길러졌습니다. 대표적인 강박신경증 환자인 ‘쥐 인간’의 증상은 돈 많은 여자를 택할 것인지 가난한 연인을 택할 것인지 하는 (아버지가 했던 고민, 결국 돈 많은 여자를 선택했다) 갈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늑대 인간’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후배위 성교를 목격한 것이 사단이 된 이 남자의 성적 취향은 엎드려서 빨래를 하는 농부(農婦)나 마루를 닦고 있는 하녀에게 꽂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막무가내입니다. “부모 모두 하인으로 상징된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이것을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의도의 예라고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이는 사회적 차별을 고려하지 않는다. 아이에게는 그것이 아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늑대인간」, 250)

▲ 무의식의 상징체계

라캉처럼 부모의 자리에 사회적 상징을 놓아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오이디푸스 구조로, 가족적 인격을 사회적 상징으로 바꾸는 것은 오이디푸스의 영토를 더욱 넓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구조는 같지만 사회마다 상징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상징적 무의식을 연구한 대표적인 사람이 옥타브 마노니입니다. 그는 『식민주의 심리학』에서 식민주의적 무의식을 식민지 사회의 독특한 상징체계로 분석합니다. 마노니는 식민지 흑인의 열등 콤플렉스는 그들의 부족적 전통 속에서 선조들과 맺어온 의존적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술과 토템, 신과의 경이로운 접촉이라는 마다가스카르 사회의 전통 문화 속에서 유전된 의존 콤플렉스 때문에 마스카스카르의 소심한 왕들은 자발적으로 백인의 수중에 들기를 학수고대했다는 것입니다. 프란츠 파농은 이런 설명을 단호히 부정합니다. 식민지 사회의 의존컴플렉스는 식민지 사회의 무의식적 상징 체계 때문이 아니라 백인 문명사회와의 조우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문명인과 원주민 간의 조우가 식민주의와 같은 독특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4]
무의식을 상징적 구조로 볼 때 무의식은 주체적(생산적) 무의식이 아니라 객관적(표상적) 무의식이 됩니다. 무의식은 결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파농이 정확하게 말한 것처럼 식민주의 무의식은 객관적으로(식민지 사회의 상징체계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백인과 흑인의 주체적 만남이 생산한 것입니다. ‘만남’이라는 주체적 사건 이전에는 흑인의 무의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흑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흑인은 백인과의 관계에서만 흑인”(「검은 피부 하얀 가면」, 140)입니다.
파농은 마노니가 예시한 말라가시인들의 꿈을 분석하면서 프로이트식 상징분석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 꿈들은 모두 ‘공포’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파농은 그 꿈에서 “잔뜩 화가 난 검은 수소”가 반드시 생식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두 명의 흑인 아저씨들”이 두 가지 유형의 아버지 형상(하나는 생부, 다른 하나는 원시조상)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며, “세네갈 병사의 소총”은 성기의 상징이 아니라 1916년산 ‘레벨’이라는 실제 소총이며, “검은 수소와 강도” 역시 로로스(lolos)라 불리는 되살아난 망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검은 피부 하얀 가면」, 131) 이 꿈의 표상들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대체 표상(성기, 아버지)도 아니고 사회적 상징(원시조상, 로로스)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간 과거의 대체표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 흑인과 백인의 만남이 일으킨 폭력의 표상들입니다. 프란츠 파농은 말합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것은 흑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검은 피부 하얀 가면」, 187)

▲ 성욕의 억제와 사회적 억압

가족은 분명 욕망의 투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리비도 대상의 원형이나 욕망의 구조를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회적 억압(répression)의 최 일선에서 욕망의 흐름이 탈코드화, 탈영토화의 극한으로 치닫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욕망의 억제는 단순히 성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억제(refoulement)는 욕망에 억제해야 할 표상을 제공함으로써 리비도의 흐름을 특정한 방식으로 코드화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억제가 사회적 억압에 복무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지적한 사람이 빌헬름 라이히입니다. 그는 『파시즘의 대중심리』(1933)에서 사회적 억압이 어떻게 가족의 성적 억제에 의해 용인되는지, 아니 욕망되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왜 사회주의 운동과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독일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치체인 파시즘이 승리했을까? 하는 질문으로 책을 시작합니다.

1932 년 7 월 독일 대중의 37%는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을 지지했고 33 년 1 월 히틀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쁘띠 부르주아는 그렇다 치고 상당수의 조직화된 노동자계급 역시 나치당을 지지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놀랐고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독일은 사회혁명을 위한 조건이 무르익었습니다. 생산력의 사회화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사이의 모순은 극에 달했고 국민 대다수는 실업과 궁핍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왜 대중은 가장 억압적인 정치체인 파시즘을 원했을까? 이 질문은 욕망이 억압적으로 투여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는 뜻깊지만 질문에 내포된 '의아스러움'에 대해서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되지?'

'왜 노동대중은 파시즘을 선택했을까?' 라고 의아스럽게 물을 때 라이히는 그것이 노동대중의 계급적 이해와 계급 의식에 위배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그들이 처한 객관적(계급적) 위치에 부합하지 않는 '주관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적 가족 속에서 억제된 성욕과 쾌락불안, 그로 인한 권위(복종) 지향적 성격구조가 파시즘적 권력을 욕망하게 했다는 설명에서 욕망은 여전히 주관적 인성이나 이데올로기 차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욕망을 경제적 하부구조 자체 속에 삽입하고, 충동들을 사회적 생산 속에 삽입하는 것을 결정짓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183) 것입니다.

---

4) 프란츠 파농, 이석호 역,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1998, 109 쪽.